

제44회 한국방송대상 수여식 개최



한 해 동안 방송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방송인들의 노력의 결실을 확인하고 공로를 치하하는 한국방송대상 수여식이 제44회를 맞이하여 한국방송협회의 주최로 지난 11월 28일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 코바코 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한국방송대상은 '방송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9월 4일 시상식이 개최되었어야 했으나 언론사 파업으로 연기되어 수여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올해의 한국방송대상은 작품상으로 23개 부문 24편이 수상하였고, 개인상으로는 21개 부문 21인이 영광의 수상을 하였다. 영예의 대상에는 KBS의 <임진왜란 1592>가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기존의 다큐멘터리 방식을 벗어나 팩츄얼 드라마의 형식 도입으로 우수한 영상미와 작품성을 극대화했다는 평을 받았다.

그 외 작품상은 △시사보도TV부문, SBS <그것이 알고싶다> '살수차 9호의 미스터리-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진실' △다큐멘터리TV 부문 MBC <휴먼다큐 사랑> '나의 이름은 신성혁' 2부작 △생활정보TV부문, EBS <명의> '병이 되는 잠 - 밤새 안녕하셨습니다?' △예능버라이어티부문, MBC <무한도전> '역사X힙합 프로젝트 위대한 유산' △연예오락TV부문, SBS <미운 우리 새끼> △연예오락R부문, TBS <배칠수, 전영미의 9595쇼> △지역다큐멘터리TV부문, TBC <풍정라디오>, 포항MBC <독도DNA> △지역다큐멘터리R부문, KNN <배리어프리 오페라> 6부작 등 총 24편에 돌아갔다. 개인상 수상자로는 △공로상 '배우故 김영애', '운군일 PD' △지역방송진흥상 박원달(TBC) △아나운서상 이상희(OBS) △진행자상 한동준(CBS) 등 21인이 영예를 안았다.

개인상의 기술진흥상을 수상한 정화섭 수상자는 UHD 추진단장으로서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의 성공적 개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UHD 방송 콘텐츠 보호시스템 도입과 UHD 콘텐츠 편성 및 제작 인프라 투자 확대, 지상파 UHD 방송 양방향 홈포털 부가 서비스 도입 등에 기여하였다.

조명상의 한상호 수상자는 조명 제작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신규 제작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제작리소스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뮤직뱅크>, <불후의 명곡>, <열린음악회>를 비롯한 여러 해외 특집 공연과 K-POP 콘서트의 프로그램 제작에 서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2017년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 대상’ 아리랑국제방송 조명실 수상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제작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12월 14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7년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 대상’ 시상식에서 ‘심플리 케이팝(Simply K-Pop)’ 등 한류 스타의 방송무대 조명에 기여한 아리랑국제방송 조명실(박용식, 안재선, 최재일)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포상 대상자는 지난 5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공모했으며, 방송, 영화, 음악, 뮤지컬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한 제작진을 대상으로, 관리자보다는 현장 중심의 제작진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문체부 장관 표창은 △‘심플리 케이팝(Simply K-Pop)’ 등의 프로그램에서 방송무대 조명에 기여한 아리랑국제방송 조명실(단체) △음악 믹싱, 레코딩 엔지니어로 조용필, 나훈아 등 가수의 음반작업에 참여했으며, 영화 <쉬리>, <해운대> 등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제작에도 기여한 노양수 스튜디오-티 음향 엔지니어 △영화 분야에서 최초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현장 여성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앞장선 남순아 프리랜서 감독 △스크린과 브라운관의 전쟁 특수효과 일인자로서 뮤지컬 <영웅>, 드라마 <모래시계>, <여명의 눈동자> 등에 참여한 박광남(주)쇼텍라인 기술 고문이 받았다. 

